

분석자료

# 외국인근로자 취업실태조사

2013. 6

# 목 차

<b>제 I 장. 조사 개요</b> .....	2
1. 조사의 배경 .....	2
2. 조사의 개요 .....	2
3. 조사의 내용 .....	2
4. 응답자별 특성 .....	3
<b>제 II 장. 조사 결과</b> .....	4
1. 연령대 및 결혼비율 .....	4
2. 최종학력 .....	5
3. 최종직업 및 귀국 후 희망직종 .....	6
4.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	7
5. 임금의 주된 활용처 및 가장 큰 관심사항 .....	8
6. 우리나라 취업 사유 및 희망 취업기간 .....	9
7. 우리나라 취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 .....	10
8. 한국어 학습방법, 학습기간, 한국어 능력 .....	11
9. 자국임금과 우리나라 최저임금 비교, 잔업에 대한 생각 .....	12
10. 우리나라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것과 가장 큰 걱정거리 .....	15
11. 임금의 관리방법 및 자국 송금 사유 .....	16
12. 자기행동 인식 및 취업교육 소감 .....	17

## 결과 요약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2013년도 최저임금이 자국임금보다 최고 7.6배에서 최저 2.7배까지 평균 4.4배 많음
  - 외국인근로자는 최저임금에 잔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평균 162.1만원(2013. 1분기)의 임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자국 임금과 비교하여 방글라데시 근로자 11.2배, 인도네시아 10.5배, 네팔 10.0배 등 최고 11.2배에서 최저 3.4배까지 평균 6.4배의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외국인노동자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 대만 등 경쟁국가에 가지 않은 이유로는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본·대만에 비해 좋은 임금 24.3%, 일본·대만에 비해 좋은 숙식 등 양호한 근로조건 20.7%로 조사되어 우리나라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경쟁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여기는 비율이 45.0%로 조사됨.
- 외국인근로자는 우리나라에 취업하기 위해 자국 송출기관 비용, 한국어시험 비용 등을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USD 2,000~3,000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에서 받는 임금은 귀국 후 자국에서 창업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43.9%로 가장 많았고, 가족 생활비 29.3%, 부동산 구입 등 재산증식 11.8% 순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취업기간 중 가장 큰 관심사항으로 기술습득이라고 한 응답이 44.9%로 가장 많았음.
- 한국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것으로 자국에서 활용할 사업아이템이라고 한 응답이 34.0%로 가장 많았고, 기술습득 30.5%, 한국어 22.8%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가장 큰 걱정거리로 언어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33.8%로 가장 많아 한국어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높았으며, 자국에 남겨진 가족걱정 20.6%, 한국의 직장문화 적응 19.6%, 추위 등 한국날씨 12.0%의 순으로 조사됨.

# I 조사 개요

## 1 조사의 배경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실태를 파악하여 한국 생활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외국인근로자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건의 기초자료로 활용

## 2 조사의 개요

조사 항목	내용
1) 조사 대상	외국인근로자 10개국 1058명
2)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대면조사
3)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0%P
4) 조사 기간	2013. 5. 1 ~ 5. 10
5) 조사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팀

## 3 조사의 내용

- 연령
  - 성별
  - 출신국가
  - 결혼여부
  - 최종학력
- 
- 자국의 직종 및 귀국 후 희망 직종
  -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 임금의 주된 사용처 및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큰 관심사항
  - 우리나라에 취업하는 이유
- 
- 희망 취업기간
  - 한국취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
  - 한국어 학습방법, 학습기간, 한국어 능력
- 
- 자국임금과 희망임금 비교, 잔업에 대한 생각
  - 우리나라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것과 가장 큰 걱정거리
  - 임금의 관리방법 및 자국 송금 사유
  - 자기행동 인식 및 취업교육 평가

#### 4 응답자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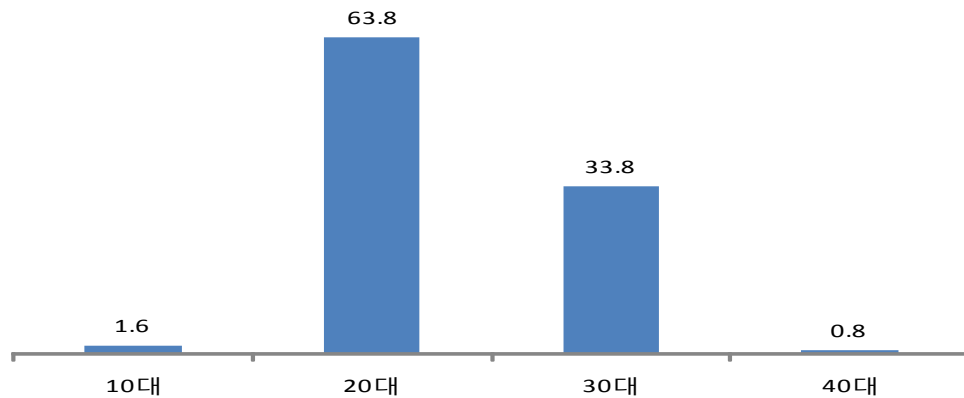
구 분		근로자 (명)	비중 (%)
전 체		1,058	100.0
입국종류	신규입국자	898	84.9
	재입국자	160	15.1
나 이	10대	17	1.6
	20대	675	63.8
	30대	358	33.8
	40대	8	0.8
성 별	남	1,020	96.4
	여	38	3.6
출신국가	네 팔	106	10.0
	미얀마	113	10.7
	방글라데시	52	4.9
	스리랑카	109	10.3
	우즈벡	158	14.9
	인도네시아	179	16.9
	캄보디아	106	10.0
	키르기스스탄	9	0.9
	파키스탄	37	3.5
	필리핀	189	17.9

## II 조사 결과

### 1 입국 외국인근로자의 연령대 및 결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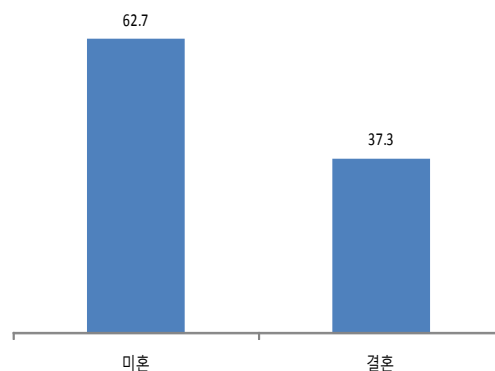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연령은 대부분 20~30대 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0대 근로자가 63.8%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근로자는 33.8%로서 전체의 97.6%가 20~30대 근로자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1> 입국 외국인근로자의 연령대(%)



- 외국인근로자의 결혼비율은 37.3%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혼자의 82.3%가 평균 1.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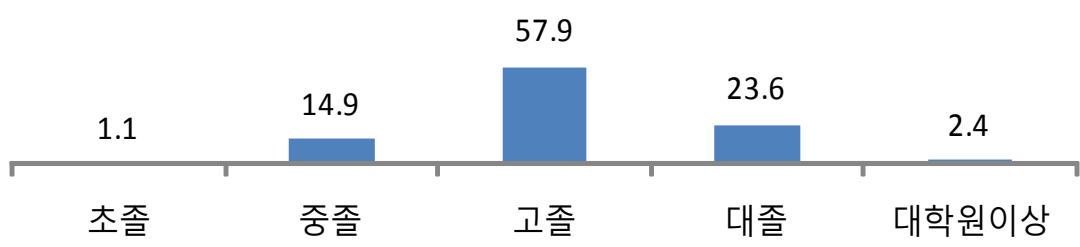
<그림 1-1> 결혼여부(%)



## 2 외국인근로자의 최종 학력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본인의 최종학력에 대해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9%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졸업** 23.6%, **대학원 졸업 이상** 2.4%로 전체의 83.9%가 고졸 이상으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저학력 응답이 **중학교 졸업** 4.9%, **초등학교 졸업** 1.1%로 나타났는데 저학력 근로자의 경우 언어습득, 기기 사용법 등에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음.

<그림 2> 외국인근로자의 최종 학력(%)



-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비율은 네팔,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의 나라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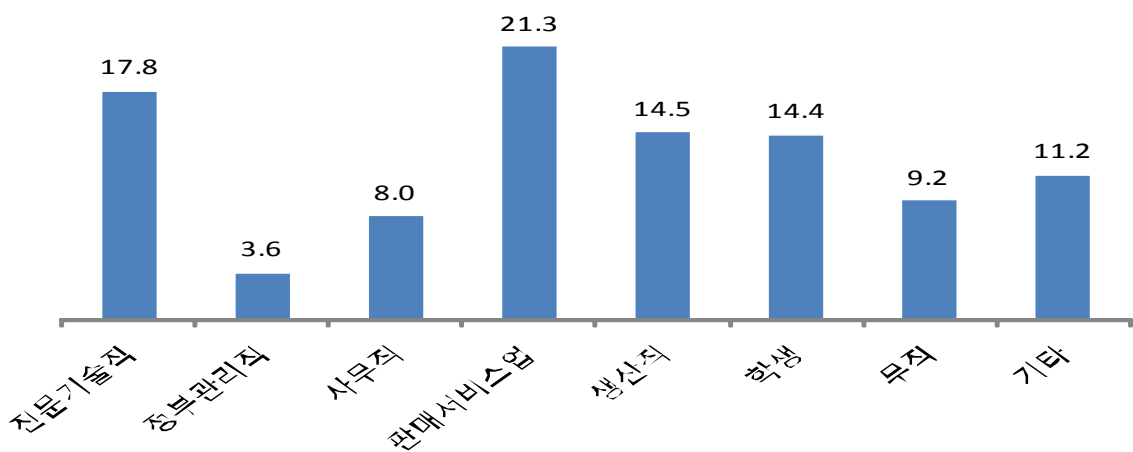
<표 1> 외국인근로자의 최종 학력(%)

구분	네팔	미얀마	방글라	스리랑카	우즈베크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합계
초졸		0.4	0.1		0.2		0.3			0.2	1.1
중졸	2.8	28.3	19.2	0.0	11.8	29.6	33.0			3.2	14.9
고졸	21.7	46.9	38.5	97.2	80.4	68.2	55.7	44.4	56.8	41.8	57.9
대졸	60.4	20.4	34.6	1.8	6.5	1.1	8.5	55.6	37.8	54.0	23.6
대학원 이상	15.1	0.9	5.8	0.9		1.1			5.4		2.4

### 3 자국에서의 최종 직종 및 귀국 후 희망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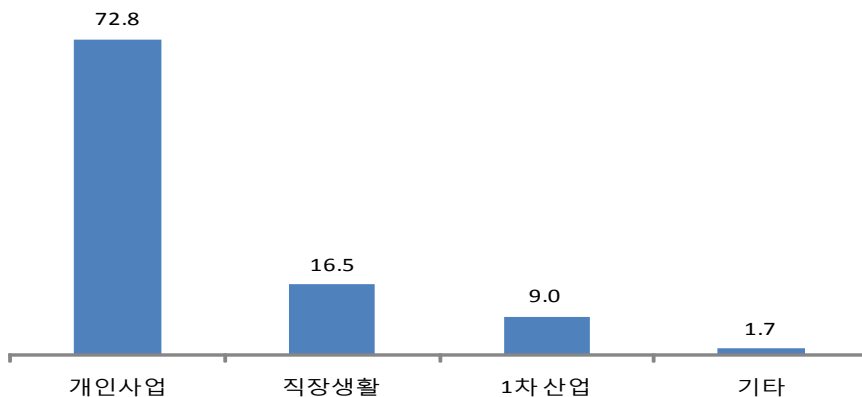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자국에서 마지막으로 종사했던 직종은 판매서비스직 2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문기술직 17.8%, 생산직 14.5%, 학생 14.4%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3> 최종 직종(%)



- 외국인근로자는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을 끝내고 자국에 돌아갈 경우 개인사업을 영위하겠다는 응답이 72.8%로 가장 많았고, 직장생활을 하겠다는 응답은 16.5%, 농·어·축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겠다는 응답은 9.0%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3-1> 귀국 후 희망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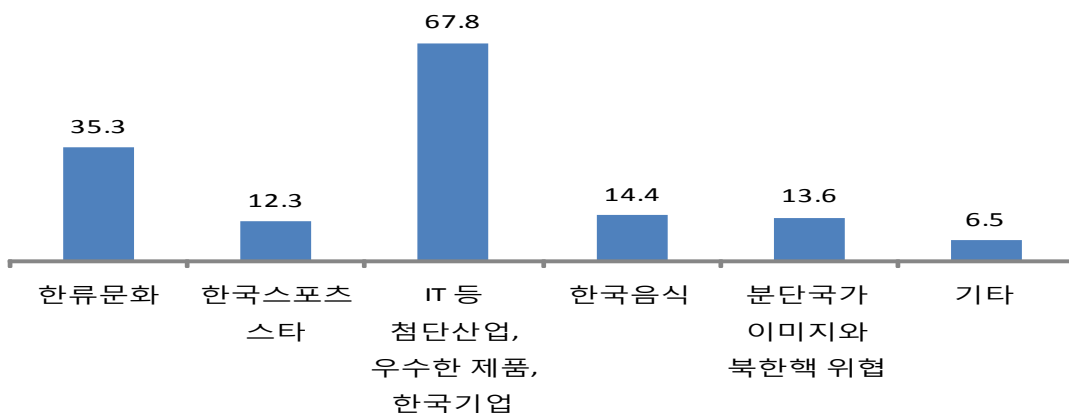




## 4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복수 응답)로 IT 등 첨단산업, 우수한 제품, 삼성·현대 등 대기업이 6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류문화 34.1%, 우리나라 음식 14.4%, 김연아·박지성 등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 12.3%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1·2순위 응답에 가장 많은 것은 공통적으로 IT 등 첨단산업, 우수한 제품, 한국기업이란 응답이었으나, 2순위 응답에서는 분단국가 이미지와 북한핵 위협, 한국음식 응답도 많았음.

<그림 4> 한국이미지<복수 응답>(%)



<표 2> 한국이미지(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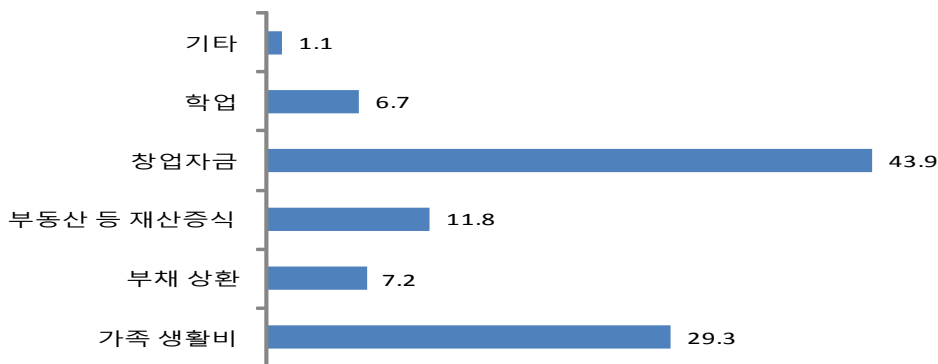
우리나라 이미지	한류문화 (드라마, 영화, K-POP)	한국 스포츠스타 (김연아, 박지성 등)	IT 등 첨단 산업, 우수한 제품, 글로벌 기업(삼성, 현대)	한국음식	분단국가 이미지와 북한핵 위협	기타
1순위	34.1	10.6	43.9	4.3	2.0	5.1
2순위	2.4	3.5	47.8	20.3	23.3	2.8
합계	35.3	12.3	67.8	14.4	13.6	6.5

주 : 합계 = (1순위 응답×2 + 2순위 응답)/2

## 5 임금의 주된 활용처 및 한국 취업 시 가장 큰 관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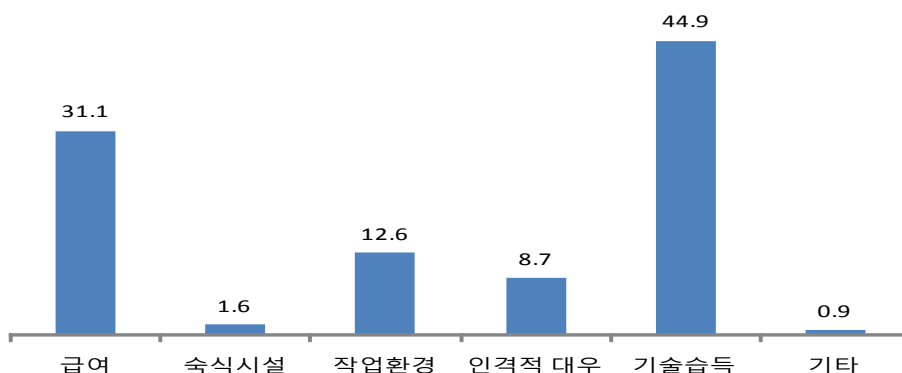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우리나라에서 받는 임금을 추후 자국에서 창업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43.9%로 가장 많았고 가족 생활비 29.3%, 부동산 구입 등 재산증식 11.8% 순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많았음.

<그림 5> 임금의 주된 활용처(%)



- 외국인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동안 가장 큰 관심사항이 기술습득이라고 한 응답이 4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임금수준이 31.1%, 작업환경 12.6%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던 반면 인격적 대우 8.7%, 숙식시설 1.6% 등의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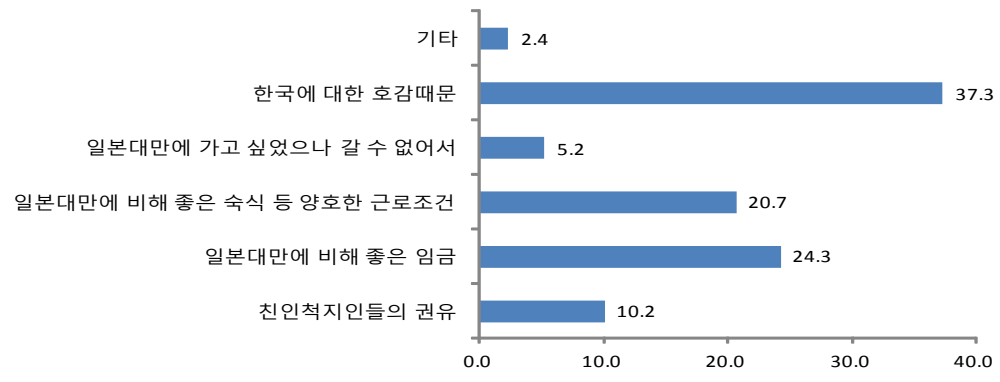
<그림 5-1> 한국 취업 시 가장 큰 관심사항(%)



## 6 우리나라 취업 사유 및 희망 취업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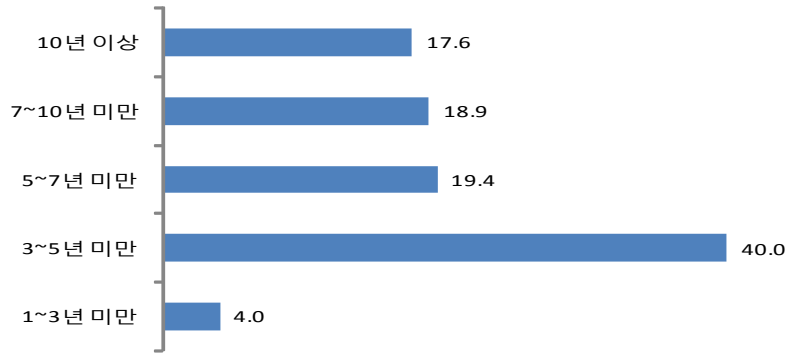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일본, 대만 등 경쟁국가에 가지 않은 이유로는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본·대만에 비해 좋은 임금 24.3%, 일본·대만에 비해 좋은 숙식 등 양호한 근로조건 20.7%로 응답해 결국, 한국의 양호한 임금 및 근로조건 때문에 한국에 취업한다는 응답이 4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일본·대만에 가고 싶었으나 갈 수 없었다는 응답은 5.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6> 한국에 취업하는 사유(%)



-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하는 취업 기간이 3년~5년 사이라고 한 응답이 40%로서 가장 많았고 5년~7년 19.4%, 7년~10년 18.9%, 10년 이상 17.6%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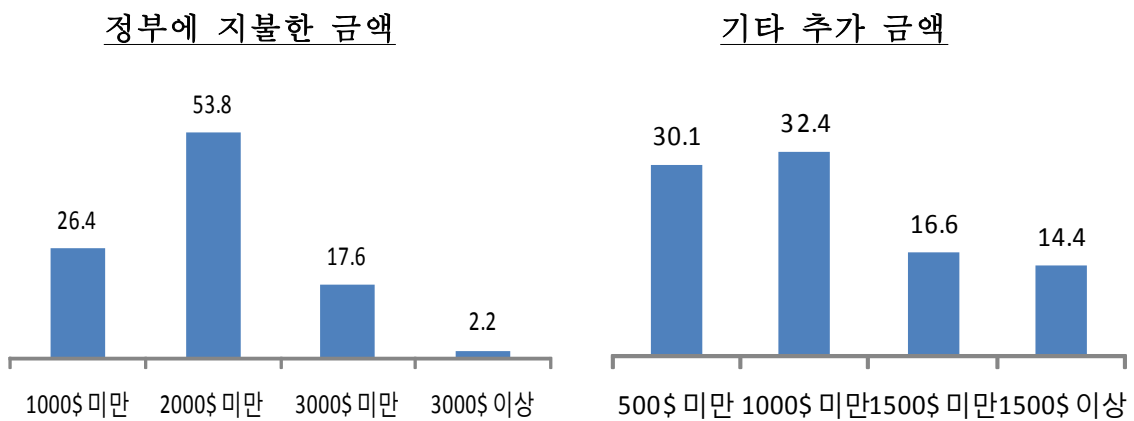
<그림 6-1> 희망 취업기간(%)



## 7 우리나라 취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자국 송출기관 비용, 한국어 시험 비용 등을 포함하여 나라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USD기준 2,000달러에서 3,000달러 사이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스리랑카 근로자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어시험 응시료, 교육비 등 자국 송출기관을 포함하여 자국 정부에 지불한 금액은 USD 1,000~2,000달러라고 한 응답이 53.8%로 가장 많았고, 1,000달러 미만이 26.4%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 건강검진 통과비용, 급행료 등 추가 금액으로 USD 500~1,000달러가 소요된다는 응답이 32.4%, 500달러 미만이 30.1%, 1000~1,500달러 미만이 6.6%로 조사되었음.

<그림 7> 우리나라 취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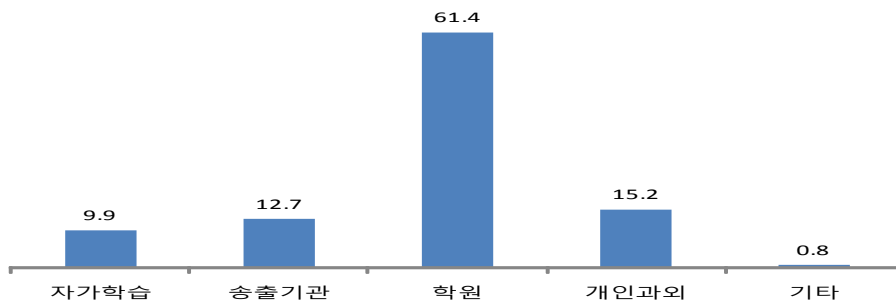
<표 3> 한국 취업을 위해 사용한 금액(USD)(%)

정부에 지불한 금액	1000\$ 미만	1000\$ ~ 2000\$ 미만	2000\$ ~ 3000\$ 미만	3000\$ 이상
	26.4	53.8	17.6	2.2
기타 추가비용	500\$ 미만	500\$ ~ 1000\$ 미만	1000\$ ~ 1500\$ 미만	1500\$ 이상
	30.1	32.4	6.6	14.4

8 한국어 학습방법 · 학습기간 · 한국어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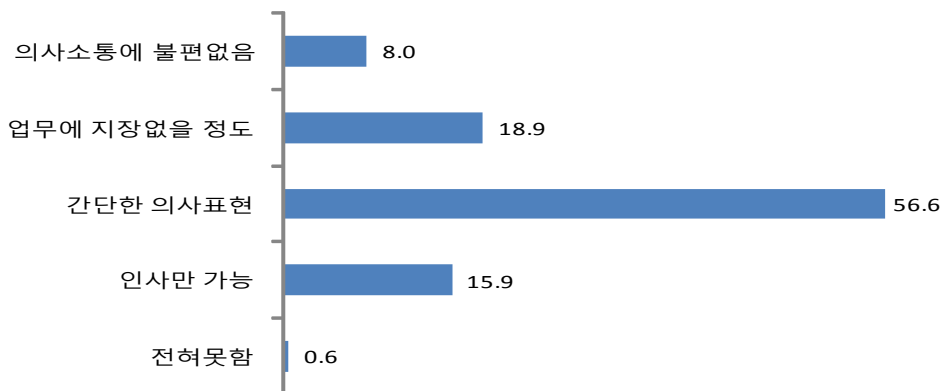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자국에서 공부한 주된 한국어 학습방법은 학원강의 61.4%가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개인과외 15.2%, 송출기관 강의 12.7%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외국인근로자가 자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기간은 6개월 미만이 가장 많은 73.7%로 조사되었고 6개월~1년 미만 21.0%, 1년~2년 미만 4.2%, 2년 이상 1.1%의 순으로 응답.

<그림 8> 한국어 학습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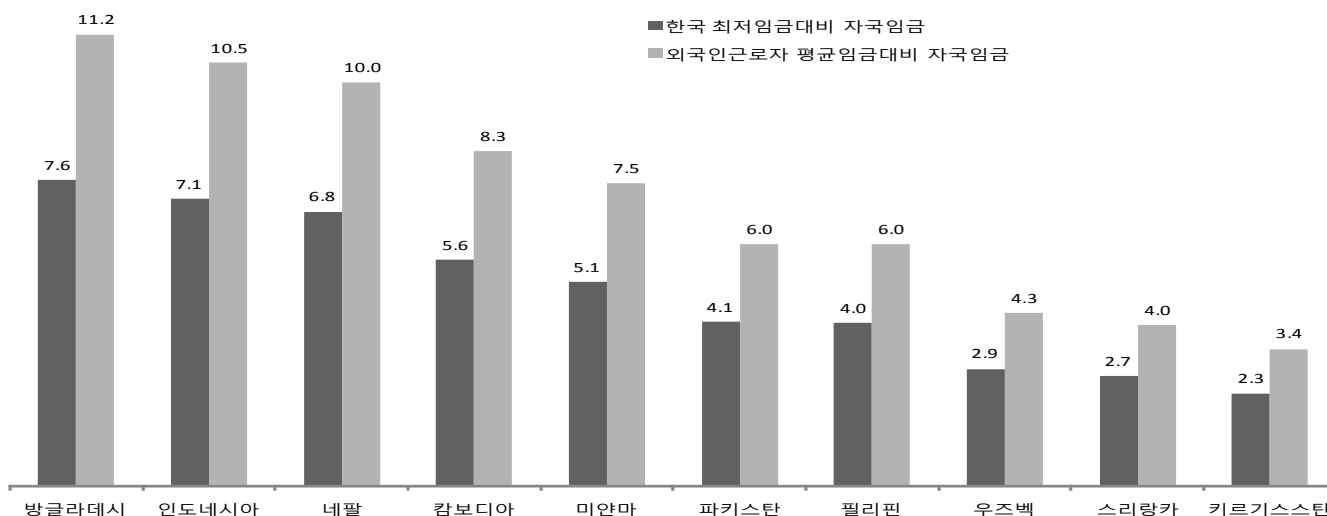
- 외국인근로자가 본인의 한국어 능력에 대해 간단한 의사표현이 가능하다고 한 응답이 56.6%로 가장 많았고,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 18.9%, 인사만 가능하다 15.9%, 의사소통에 불편이 없을 정도 8.0%로 조사되었음.

<그림 8-1> 한국어 능력(%)



## 9 자국임금과 우리나라 최저임금 비교

- 우리나라 2013년도 최저임금(1,098,360원 ; 주 44시간)과 외국인근로자 자국임금을 비교해보면 방글라데시 보다 7.6배, 인도네시아 7.1배, 네팔 6.8배, 캄보디아 5.6배 등 최고 7.6배에서 최저 2.7배까지 평균 4.4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외국인근로자는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에 잔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실제 수령하는 임금은 월평균 162.1만원(2013. 1분기)이므로 외국인근로자의 자국임금과 비교해보면 방글라데시 11.2배, 인도네시아 10.5배, 네팔 10.0배 등 최고 11.2배에서 최저 3.4배까지 평균 6.4배의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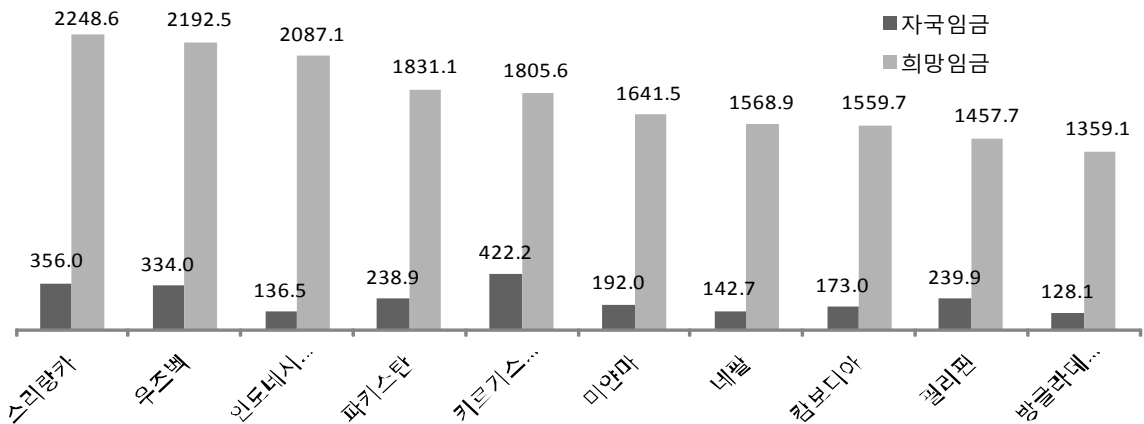


<표 5> 자국임금 대비 한국 최저임금 및 외국인근로자 수령임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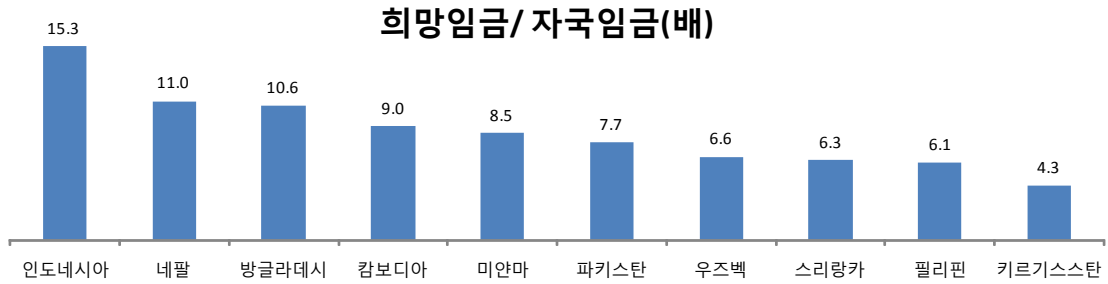
국가별	자국임금 대비 우리나라 최저임금	자국임금 대비 외국인 수령임금
방글라데시	7.6	11.2
인도네시아	7.1	10.5
네팔	6.8	10.0
캄보디아	5.6	8.3
미얀마	5.1	7.5
파키스탄	4.1	6.0
필리핀	4.0	6.0
우즈베크	2.9	4.3
스리랑카	2.7	4.0
키르기스스탄	2.3	3.4
평균	4.4	6.4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하는 임금은 USD 기준 평균 1,826.3달러/월이며 이에 비해 자국에서의 임금은 평균 222.4달러/월로서 희망임금 대비 8.2배에 해당.
- 우리나라에서 희망하는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외국인은 스리랑카 근로자로 자국에서 월평균 356달러인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월평균 2,249달러를 희망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경우 자국에서는 월평균 334달러인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월평균 2,193달러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반면, 희망임금이 비교적 낮은 국가는 방글라데시, 필리핀, 캄보디아 등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9> 월평균 자국임금 및 희망임금(USD)



- 희망임금 대비 자국임금의 비가 가장 큰 나라는 인도네시아로 15.3배이며, 네팔 11.0배, 방글라데시 10.6배의 순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근로자의 평균 희망임금인 1,826.3달러는 2013. 5월 말 환율기준으로 우리나라 화폐로 206.5만원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보다는 88.1%가 많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실수령 임금(2013년 1분기) 162.1만원 보다는 27.3% 많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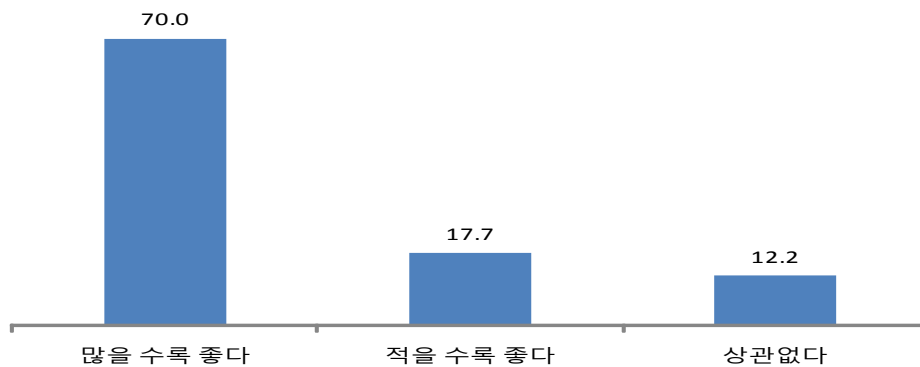


<표 4> 월평균 자국임금 및 희망임금 비교(USD)

국가	자국임금	희망임금	희망임금/ 자국임금	비고
스리랑카	356.0	2,248.6	6.3 배	
우즈벡	334.0	2,192.5	6.6 배	
인도네시아	136.5	2,087.1	15.3 배	
파키스탄	238.9	1,831.1	7.7 배	
키르기스스탄	422.2	1,805.6	4.3 배	
미얀마	192.0	1,641.5	8.5 배	
네팔	142.7	1,568.9	11.0 배	
캄보디아	173.0	1,559.7	9.0 배	
필리핀	239.9	1,457.7	6.1 배	
방글라데시	128.1	1,359.1	10.6 배	
평균임금	222.4	1,826.3	8.2 배	

- 외국인근로자는 대부분 잔업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잔업이 많을 수록 좋다는 응답이 70.0%로 절대적이었던데 반해 적을 수록 좋다는 응답은 17.7%에 불과하였음.

<그림 9-1> 유급잔업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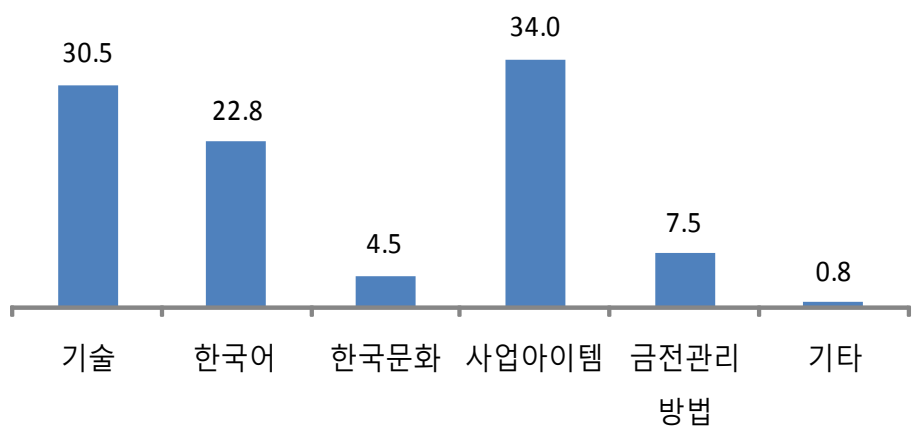




**10 우리나라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것과 가장 큰 걱정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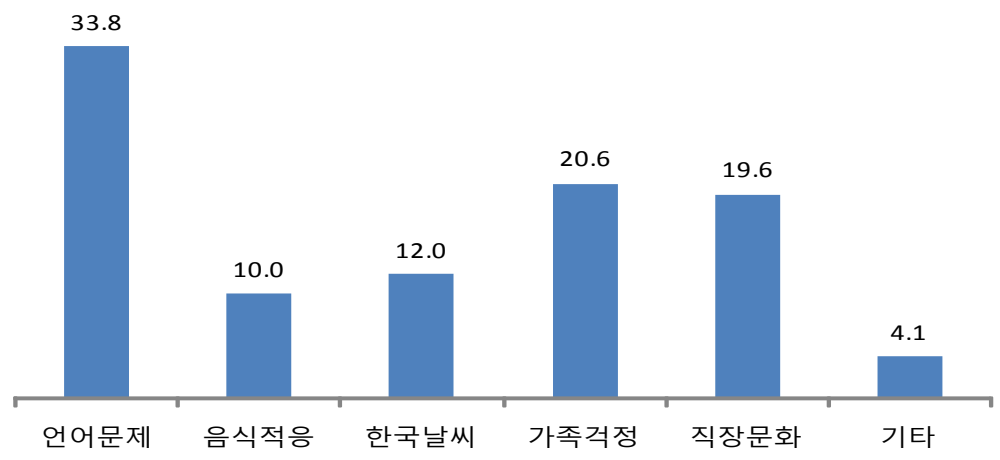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 기간 동안 가장 배우고 싶은 것으로 자국에서 활용할 사업아이템이라고 한 응답이 3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술 30.5%, 한국어 22.8%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10> 한국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것(%)



- 외국인근로자는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데 가장 큰 걱정거리로 언어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33.8%로 가장 많았고, 자국에 남겨진 가족걱정 20.6%, 우리나라의 직장문화 적응 19.6%, 추위 등 한국날씨 12.0%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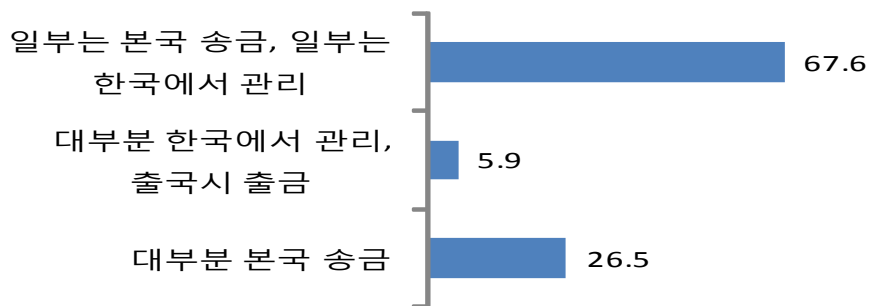
<그림 10-1>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큰 걱정거리(%)



## 11 임금의 관리방법 및 자국 송금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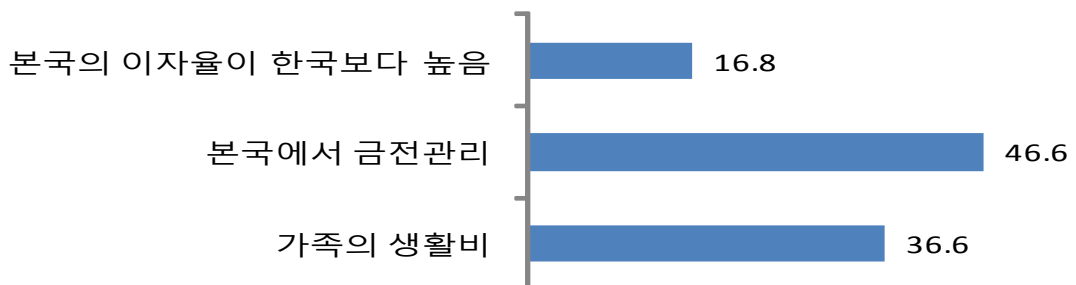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받은 임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자국 송금과 한국에서의 자금관리를 적절히 혼용 하겠다는 응답이 67.6%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의 임금을 자국으로 송금 26.5%, 대부분의 임금을 한국에서 관리하고 출국 시 출금 5.9%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11> 임금의 관리방법(%)



-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받는 임금의 대부분을 자국으로 송금할 경우 그 이유로는 자국의 가족 등이 금전관리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6.6%로 가장 많았고 가족의 생활비로 활용하겠다 36.6%, 자국의 이자율이 한국보다 높기 때문 16.8%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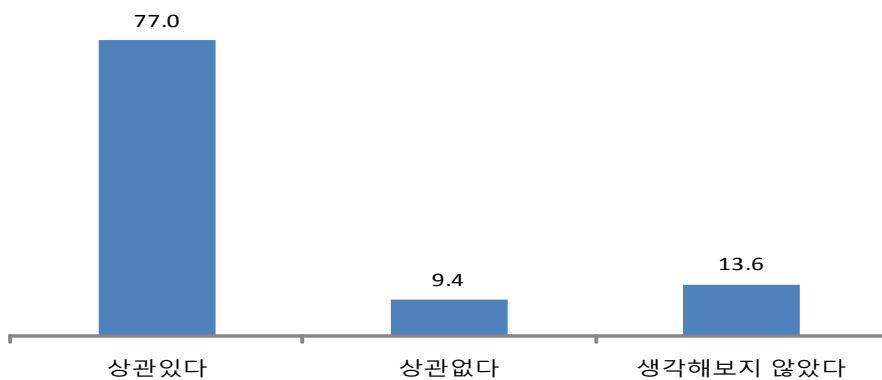
<그림 11-1> 자국으로 송금하는 이유(%)



12 자기행동 인식 및 취업교육 소감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의 본인 행동이 자국의 명예와 관련되느냐는 질문에 77.0%가 **상관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상관없다**는 응답은 9.4%에 불과하였음.

<그림 12> 한국에서의 행동과 자국 명예와의 관련성(%)



-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직후 2박 3일 동안 받는 16시간의 취업교육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며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해야 겠다**라고 한 응답이 66.3%로 가장 많았고, **직장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도 27.3%로 조사되어 전체의 93.6%가 취업교육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음.

<그림 12-1> 취업교육 소감(%)

